

‘비상등’ 류현진, 일정까지 변수...더 중요해진 애리조나전

오는 30일 체이스필드 원정 선발 등판 예정
사이영상 유력후보 불구 최근 두 경기 ‘흔들’
9월 이후 등판일정 미정 자체가 변수 전망도

지난 두 경기 부진으로 인해 사이영상 레이스에 비상등이 켜진 류현진(32·LA다저스). 9월 이후 일정이 미지수가 되며 당장 다음 등판인 30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경기보다 중요해졌다.

MLB.com에 따르면 류현진의 다음 등판은 30일 체이스필드에서 열리는 애리조나 원정경기다. 다저스가 지난 21일부터 9월5일까지 13연전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기에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선발투수를 1명 더 늘려 한시적인 6인 선발로테이션을 꾸렸다. 기존 5선발에 대신된 메이 가할류였다.

류현진의 휴식도 하루가 늘어 29일이 아닌 30일 등판하게 됐다. 류현진에게는 매우 중요한 등판이 될 전망이다.

1점대 초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

는 등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유력후보로 거론될 정도의 완벽한 활약을 펼쳤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다.

류현진은 지난 18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원정경기에서 5%이닝 4실점, 24일 뉴욕 양키스와 홈경기에서도 4%이닝 9피안타(3피홈런) 1볼넷 7탈삼진 7실점으로 무너졌다. 두 번의 등판에서 도합 5개의 홈런을 맞고 2패를 떠안았다.

무엇보다 사이영상 경쟁력을 크게 상실했다. 강점이었던 평균자책점이 1점대 초반에서 2.00으로 상승했다. 다승(12승), 탈삼진(133개), 이닝(152%) 등 세부 부문에서 압도적이지 않은 류현진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뉴욕 메츠 제이콥 디그롬(8승7패·2.56·207개·162이닝)과 부상에서 복귀한 워싱턴 내셔널스의 맥스 슈어

저(9승5패·2.41·192개·138%이닝) 등 경쟁자들의 도전을 허용했다.

여전히 평균자책점 전체 선두인 류현진의 수상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자칫 경쟁자들에게 기회를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류현진의 9월 이후 등판일정 자체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로버츠 감독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류현진의 9월 등판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등판을 건너뛰거나 투구 이닝을 줄이는 방식이 유력한데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특히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압도적 선두로 일찌감치 포스트시즌 진출이 유력한 다저스로서 시즌 후반 무리한 경기운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포스트시즌에서 류현진의 역할이 큰 만큼 미리 휴식을 줄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류현진의 등판 및 이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신호다. 류현진 개인으로서 이득이 되는 일이지만 동시에 사이영상 레이스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크다.

즉, 류현진의 최근 부진이 일시적인 것으로 판명되고 체력적인 문제도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결론이 필요한 것이다. 다시 한 번 압도적인 내용으



로 경쟁력을 입증해야만 다저스가 류현진의 사이영상 레이스를 도와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결국, 류현진은 이번 애리조나 원정에서 보여줘야 할 게 많은 상황에 놓였다.

벤틀호 발탁 K리거 키워드는 수비...5명 중 3명 전복

K리거 총 10명 뽑혀...리그 1위 울산 4명으로 최다



김진수

이용

권경원

파울루 벤틀호 감독의 부름을 받은 K리거들의 특징은 ‘짚물 수비수’로 요약할 수 있다. 올시즌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는 전북 현대의 ‘닥공’을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는 김진수, 이용, 권경원이 벤틀호의 선택을 받았다.

벤틀호 감독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9월 A매치 2연전 소집 명단을 발표

했다. 이번 소집 명단은 그간 친선경기 소집 명단과는 무게가 다르다.

9월10일 열리는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1차전 투르크메니스탄전을 앞두고 있어서다.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 김신욱(31·상하이 선화), 황의조(27·지롱댕 보르도) 등 화려한 공격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짚물 수비가 필요할 때다. 지난 1월 카타르에 패배를 겪은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의 교훈을 잊어서 안 된다.

그 중심에 K리거 수비수가 있다. 이번에 벤틀호 감독의 부름을 받은 K리거는 총 10명이다. 이중 골키퍼 조원우(대구FC), 김승규(울산현대), 미드필더 김보경(울산현대), 이동경(울산현대), 공격수 이정현(부산아이파크)을 제외한 5명이 수비수다. 울산은 신에 이동경까지 더해 4명으로 가장 많은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한 구단이 됐다.

벤틀호의 수비수는 총 8명인데 이중 5명이 K리거다. 권경원(전북현대), 홍철(수원삼성), 김진수(전북현대), 이용(전북현대), 김태환(울산현대)이 주인공이다.

특히 전북의 K리거 선두싸움을 뒤에서 묵묵히 밀어주는 권경원과 김진수, 이용의 발탁이 눈에 띈다. 이들은 벤틀호의 ‘짚물맨’들이 된 전북 삼총사는 현재 울산에 이어 리그 최소 실점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날카로운 크로스를 보이며 수원의 왼쪽 측면을 책임지는 홍철과 ‘치타’란 별명답게 울산의 오른쪽을 활발히 오르내리는 김태환의 발탁도 눈에 띈다. 특히 김태환은 지난 6월 A매치 발탁에 이어 2연속 벤틀호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김태환은 김문환(부산아이파크)의 부상 공백을 잘 메꿔 벤틀호 감독에게 확신을 줘야 한다.

불박이 김민재(배이징)와 김영권(감마 오사카)이 지키는 센터백 라인에 권경원이 내민 도전장도 관심사다. 권경원은 올여름 이적 시장에서 중국 텐진 헨하이에서 전북으로 옷을 갈아입은 뒤 K리그에서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고진영, 여자골프 세계랭킹 5주 연속 1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4승을 달성한 고진영(24·하이트진로)이 5주 연속 세계랭킹 정상에 지켰다.

고진영은 27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랭킹 포인트 1022점을 기록, 1위에 올랐다. 2위 박성현(26·솔레이아)과는 1.77점 차다.

고진영은 전날(26일)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끝난 LPGA투어 캐나다 퍼시픽(CP) 여자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해 시즌 4승과 함께 통산 6승을 달성했다.

지난달 메이저 대회 예비왕 챔피언십 우승으로 7월29일자 랭킹에서 1위에 오른 고진영은 5주 연속 세계 정상 자리를 지켰다.

랭킹 1~10위는 변함이 없었다.

박성현은 랭킹 포인트 845점으로 2위를 지켰다. 이정은(6·23·대방건설)은 5위, 박인비(31·KB금융그룹)는 7위다.

유소연(29·메디힐)은 1계단 하락한 14위에 자리했다. 김세영(26·미래



에셋)은 11위, 김효주(24·롯데)는 16위다.

25일 끝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루키’ 임희정(19·한화큐셀)은 58계단 오른 108위에 자리했다.

25일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 레이디스에서 3위에 오른 이보미(31)는 48계단 상승한 223위다.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